

머니투데이

보인고, 학교의 노력을 통한 가정의 변화 이뤄

B&C 고문순 기자 | 입력 : 2014.07.03 15:37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가 학교의 변화를 통해 가정의 변화까지 구현하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보인고는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어머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인고의 어머니 프로그램으로는 ‘보인 페어런팅’이 있다. 내 아이를 명품으로 만드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 주제를 가지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며 6회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시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관계,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와 어머니의 독서모임은 교사와 어머니의 생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독서 토론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공감하는 모임으로, 지역 평생교육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문학 도서인 100문100답(이범), 리딩으로 리드하라(이지성), 황홀한 글 감옥(조정래), 욕망해도 괜찮아(김두식) 등 다양한 도서를 선정하고 월 1회씩 모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버지 프로그램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진심 찾기 여정인 ‘아버지 여정’이 있다. 아버지 역할 정립 프로그램으로,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4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1박 2일로 아들과 함께 떠나는 캠프를 운영한다.

멋진 아버지의 조건(1주차), 다섯 가지 아버지 유형(2주차), 용서(3주차), 멋진 아버지들의 다섯가지 습관(4주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배가 비슷한 아버지들의 만남, 아버지의 인생과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통해 한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보인고의 프로그램이 경쟁에만 치우쳐진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